

화순 동북정수장 시설 개선 나선다

화순·광주 일부지역 수돗물 공급 110억 들여 현대식 정수공법으로 내년엔 백아면 정수장 개량 사업



화순군이 동북정수장을 현대식으로 개량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화순 동북댐 일대 전경.

화순군과 광주광역시 일부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화순 동북정수장이 전면 개량된다. 16일 화순군에 따르면 환경부 주관 노후정수장 개량사업 공모에 동북정수장이 최종 선정돼 현대식 정수처리 공법의 정수장으로 전환하는 개량공사에 착수한다.

섬진강의 제2지류인 동북천을 가로질러 막은 동북댐에서 끌어온 물을 정수하는 동북정수장은 지난 1982년 준공됐으며 이후 원수수질 불안정, 현대식 시설기준 부적합, 내진설계 미반영 등 수도사업 발생 위험요소가 높아 시설물 개량 요구가 높았다. 군은 지난 2016년 동북 취수장 이전과 정수장 전면 개량의 내용을 담은 화순군 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환경부 승인을 받아 국비 확보의 토대를 마련했다.

올해 2월에는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에 참여해 사업추진 의지와 정부의 물관리 정책방향에 부합한 계획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사업에 선정되며 주민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다가갔다. 군은 2025년까지 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해 정수장 시설 개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동북면의 수돗물 안전성 확보, 주민 보건위생 증진,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순군은 2023년에는 백아면 정수장 현대화 개량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흥 목촌리 동백숲 붉은 꽃송이 똑똑



장흥군 목촌리 동백림을 따라 붉은빛 꽃길이 만들어졌다. 목촌마을 어귀에 자리한 동백숲은 마을에 맥을 이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성된 인공림이다. 2000㎡ 넓이의 숲에는 140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뿔뿔이 들어서 있다. <장흥군 제공>

담양군,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

노인·장애인·아동 우울감 해소 농촌융복합 인증경영체 소득증대

담양군이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감소한 노인·장애인·아동의 우울감 해소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의 소득증대를 위한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가 생산하는 다양한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제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담양에 있는 8개 업체에서 각각 공급하는 우리 쌀 컵케이크 만들기, 새콤달콤 백향과정 만들기, 반려식물 키우기 등 19종의 체험꾸러미가 있으며 개인이나 일반 단체도 남도장터를 이용해 구매할 수 있다.

특히 건강꾸러미를 통한 체험활동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TV' 유튜브 채널과 남도장터 홈페이지에서 상품소개나 체험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 어린이집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57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상·하반기 2회 신청을 받으며 상반기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신청서류 등을 군 친환경유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시설은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직접 건강꾸러미를 구입해 체험활동 후 군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코로나 시대에 소외계층과 어르신들이 체험활동을 통해 소소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며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강진에서 제2의 인생 시작합니다"

예비 귀농·귀촌인 12세대 강진 체류형귀농사관학교 입학



강진체류형귀농사관학교에 참여한 귀농·귀촌인들이 지난 10일 입학식을 가졌다. <강진군 제공>

"강진에서 행복한 제2의 인생 시작합니다." 강진군은 도시민 12세대를 대상으로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입학식을 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입교생들은 귀농·귀촌을 위해 서울과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신청한 도시민이다. 이들은 9개월 동안 강진에 머물면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입교생들은 3월 한 달간 주 작목 배움 교실에 13회 참여하며 작목을 선택하고 4월부터 멘토-멘티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는다.

작목 재배기술 및 영농 노하우, 주변 농가와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귀농·귀촌 후 영농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노하우를 배운다.

지난 3년간 체류형 귀농사관학교를 통해 강진에 정착한 세대는 17세대 33명이며 딸기, 작약

등을 재배하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강진에서 6개월 머물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고 귀농·귀촌에 필요한 인

적, 물적 인프라도 만드시길 바란다"며 "더 행복한 인생 2막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중대 재해없는 '안전 함평' 만든다

전담 TF 신설·운영

함평군이 중대 재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담 조직인 '중대 재해 TF'를 신설·운영한다.

함평군은 중대 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14일 자로 2명(팀장 1, 팀원 1)으로 구성된 중대 재해 TF를 안전건설과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중대 재해 TF는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 재해 발생에 따른 사업주 등의 처벌을 규정한 중대 재해 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

다.

신설된 TF는 중대 재해예방 중장기계획 수립,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중대 재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중대 재해 TF를 중심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며 "중대 재해 없는 '안전 함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성군,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운영

공익형 사업 100명 늘려 1600명

장성군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장성군은 당초 1500명 고용을 목표로 한 올해

사업 규모를 키워 공익형 사업 참여 인원 100명을 늘렸다. 예산 1억6200만원을 추경을 통해 전액 군비로 확보했다. 장성군은 고령의 주민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

공하고 일정 소득을 지원하고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 중이다. 월 30시간 참여 기준 급여 27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소득 공백이 발생한 주민의 참여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어르신의 소득 증대와 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를 잘 빠르게 확대했다"며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